

유치원생 어머니에 대한 P.E.T.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The Effect of P.E.T. Program for Kindergarten Mothers—

충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연미희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ongshin College

Lecturer; Mi Hee Yeon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실험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V.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effect of Gordon's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on maternal attitude and communication skill. The subjects were 56 mothers from a kindergarten in Seoul. 30 mothers were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 and 26 mothers to the experimental group.

Pre and post measures on the two dependent variables using Hereford's Parent Attitude Survey and Umstot's Sensitivity To Children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the subjects on the first and last of the 8 week P.E.T. course.

The collected data was statistically analyzed by using t-test and paired t-test.

The resul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and the experimental groups in changing the mothers' attitude. But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kill were found.

I. 서론

부모가 아동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공적인 인식은 상당히 최근이다(Rob & Norfor, 1980). Heath(1987)는 부모역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가는 것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편부모 및 의부모 가정의 증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변화, 그리고 비효과적이며 학대적인 아동양육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변화의 결과라고 말한다.

복잡하고 요구가 많은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는 미래의 직업에 대한 준비만큼이나 중요하지만(이재연·김경희, 1989) 대부분의 부모는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부모역할을 위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자녀교육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역할수행상의 혼란으로 볼 수 있다(황옥자, 1987).

부모역할의 준비에 대한 요구의 인식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확산에 의해 입증된다. 미국에서는 부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확산이 1970년대에 크게 일어났다(Noller & Taylor, 1989). 여기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행동수정 기법과 P.E.T.이다. 다음으로 세가지 보편적인 접근 방법은 Dreikurs와 Cascel의 민주적 모형, Ginott의 인본주의적 전략 그리고 Berne의 상호교류분석의 접근이다. 오늘날 부모교육은 보다 민주적인 자녀양육방법을 옹호하고 있다.

부모교육은 아동의 긍정적인 행동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의 의도적인 학습활동(Croake & Glover, 1977)이며,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형식적 중재전략(Tavormina, 1974)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부모교육은 부모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Anchor & Thomason, 1977).

우리나라는 1980년 초기부터 부모교육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인식차원의 기초연구들(박영실, 1981; 구형선, 1982; 송주란, 1982; 이연승, 1984; 이숙희,

1985; 홍기형 외 3인, 1985)로부터 외국의 프로그램을 실험하는 연구들(이영분, 1983; 한성심, 1983; 박영충, 1985; 박찬수, 1985; 한기은, 1985; 김경미, 1987; 김미애, 1987; 양영희, 1987; 황옥자, 1987; 김진숙, 1988)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한국적 프로그램의 탐색연구(이영분, 1990)도 한편 이루어져 있다. 실험연구의 대부분은 Dinkmeyer와 McKay의 STEP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며, P.E.T. 프로그램은 한 연구(이영분, 1983)에서 이루어졌으나 정규의 과정이 아니며 측정도구상의 제한점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1989년부터 P.E.T.지부가 생겨나 강사훈련을 통해 P.E.T. 강사가 배출되었으며, 배출된 강사에 의해 많은 부모들(대부분은 어머니들)이 부모교육을 받았고 현재에도 많은 부모들이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중에게 널리 확산되어지고 있는 P.E.T.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사소통기술에 역점을 둔 민주적인 자녀양육방법인 Gordon의 P.E.T.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가설 1: "P.E.T."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양육태도의 5개 하위척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가설 2: "P.E.T."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의사소통기술이 향상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프로그램

1) 역사적 배경

역사적으로 훈련프로그램들은 예방적이기보다는 치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Gordon의 P.E.T.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치료적인 맥락에서 개발되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들과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을 가르치는 정규 8주 과정으로 발전되었다. P. E.T.모형에서 아동양육의 개념들은 인본주의적 심리학 특히 Carl Rogers의 원리와 성장을 최대한으로 돕는 민주적 관계의 역할에 대한 Gordon 자신의 이론에서 유래된다(Umstot, 1979).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기술은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 나-전달법(I-Message), 제3의 방법, 그리고 가치관 대립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걸림들, 너-전달법과 같은 비효과적인 의사소통형태에 대해서도 검토된다.

P.E.T.프로그램은 연속적으로 8주동안 계속되는데 한주에 한번 3시간 동안 30명이 넘지 않는 범위의 집단을 수천명의 훈련된 강사들의 조직망에 의해 대중에게 전달된다. 이런 강사들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600,000명 이상의 부모들을 잘 가르쳐왔고, 캐나다와 오스트레리아의 모든 지역과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남아프리카,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다(Mace, 1983). 우리나라에서는 미8군내에서 일부 행해지던 것이 1989년 한국심리상담소에 P.E.T.지부가 생겨나서 해마다 30명 가량의 강사를 훈련시켜 현재 103명의 강사배출과 함께 훈련된 강사에 의해 정규의 P.E.T. 프로그램을 받은 부모들(대부분 어머니들)이 약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 P.E.T.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P.E.T.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기술과 원리를 배우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P.E.T.의 이러한 목적은 다음의 4가지 목표로 구체화된다. 첫째,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둘째, 부모가 아이들의 비수용적인 행동에 대면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부모-자녀간의 욕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부모-자녀간의 가치관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Linda, 1989).

3) P.E.T.의 기본 원리

(1)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

단지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말문 열어주기나 침묵, 인정하기 등의 수동적 경청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인 적극적 경청은 송신자(sender)뿐만 아니라 수신자(receiver)도 의사소통과정에서 적극적이다. 즉 적극적 경청에서 수신자는 송신자가 느끼는 것이나 그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수신자는 자신이 이해한 것을 말로 표현하여 송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피이드백하는 것이다. 수신자는 비평, 견해, 충고, 논리, 분석 혹은 질문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된다. 단지 송신자의 메시지가 의미한다고 느끼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피이드백하는 것이다(Gordon, 1975).

적극적 경청은 아이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대체로 부모들은 아이들의 문제상황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감정표현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아동은 친구, 형제자매, 부모, 교사, 주위 환경 혹은 자신과의 문제로 실망, 좌절, 고통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모의 도움을 받은 아동들은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더욱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들은 정서적 문제를 나타내게 된다(Gordon, 1975).

(2) 나-전달법(I-Message)

나-전달법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문제를 소유할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기술이다. 이때 부모는 거부, 좌절,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긴장과 불안감으로 인해 아이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조정하려 할 것이다. 나-전달법은 아동자신과 부모-자녀관계를 더욱 건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행동을 자녀가 수정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아동의 저항과 반항을 훨씬 덜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자녀에게 어떤 행동이 나쁘다고 말하기보다는 자녀의 행동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덜 위협적이다. 나-전달법은 또한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데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결과적으로 나-전달법은 아동의 성장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도와준다(Gordon, 1975).

(3) 양승법(No-Lose Method)

P.E.T.프로그램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양승법은 '제

3의 방법'이라고도 부른다. 비록 제3의 방법은 거의 모든 부모들에게 낯설지만 쉽게 이해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방법의 사용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는 상호간의 동의를 통해 그들의 의견차이를 해결하고자 제3의 방법을 사용한다. 사업상 동업자들은 그들의 빈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동등하거나 비교적 동등한 힘을 소유한 개인들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자주 사용된다(Gordon, 1975).

제3의 방법은 아동이 해결책을 수행하는데 동기화되어있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낼 기회가 많아지며, 부모-자녀간의 적대감을 줄이고 사랑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Gordon, 1975).

이러한 잇점을 가진 제3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1단계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정의하기, 2단계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해결책을 모두 말하기, 3단계는 가능한 해결책을 평가하기, 4단계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결정하기, 5단계는 해결책을 수행하기, 그리고 6단계는 사후의 평가이다(Linda, 1987).

(4) 가치관 대립

가치관 대립 기술은 두사람의 가치관이 갈등 상태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다. 아동의 신념, 가치관, 생활양식, 선호도, 인생철학 등에 관련된 행동으로 인해 부모-자녀간에 발생한다. 이러한 가치관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본보기가 되거나 자녀가 도움을 청할 때 기꺼이 상담자가 되어주고, 부모 자신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Gordon, 1975).

2.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1) P.E.T. 프로그램과 부모의 양육태도

P.E.T.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는 일관성이 없다. 대부분 P.E.T. 프로그램을 받은 부모들 — 주로 어머니들 — 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Hereford의 P.A.S.(Parent Attitude Survey)로 훈련의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Hanley, 1974; Miles, 1974; Schmitz, 1975; Noble, 1976; Pelkey, 1976; Schofield,

1976; Geffen, 1977; Mitchell McManis, 1977; Pieper, 1977; Pinsker, 1977; Gianotti, 1978; Umstot, 1979; Rob & Norfor, 1980; Noller & Taylor, 1989; Cedar, 1990)이 많이 보고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간에도 연구결과에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P.E.T. 프로그램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들(Anchor & Thomson, 1977; Lewis, 1978; Witty, 1978)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Hereford의 P.A.S.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Umstot (1979)는 각각 12명의 부모들(4명의 아버지와 8명의 어머니)을 정규의 P.E.T. 프로그램을 받는 집단과 P.E.T.교재만을 읽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단지 수용의 하위척도에서만 정규의 프로그램을 받은 집단의 부모들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집단이 없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Geffen(1977)은 42명의 편부모를 무작위로 21명씩 실험과 통제집단에 할당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편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어 부모로서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그들이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녀를 더욱 잘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Gianotti (1978)는 학습지진아의 중류층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46명씩 통제와 실험집단에 무작위로 할당하여 프로그램 실시후 양육태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P.A.S.의 모든 하위척도 자신감, 인과성, 이해, 수용 그리고 신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Hanley(1974)는 P.E.T. 프로그램과 또다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F.E.P.(Family Enrichment Program)를 실시한 결과 P.E.T. 프로그램을 받은 부모들이 수용과 이해의 하위척도에서 유의하게 증가했지만 나머지 신뢰, 자신감, 인과성의 하위척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Schofield (1976)의 경우는 P.E.T. 프로그램과 행동수정 프로그램을 실험집단에 각각 14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도 14명의 부모를 할당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P.E.T. 프로그램을 받은 부모들만이 수용과 이해의 하위척도에서 유의한 궁

정적 변화가 나타났고, 행동수정프로그램을 받은 부모나 통제집단의 부모들에게서는 어떤 하위척도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변화에는 P.E.T.프로그램이 탁월한 접근방법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Rob & Norfor(1980)는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았는데 인과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 자신감, 수용, 이해, 신뢰에서 사전검사의 점수보다 사후검사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Schmitz(1975)는 46명의 부모를 실험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 보았는데 인과성과 신뢰의 하위척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나머지 하위척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에 Lewis(1978)의 경우에는 P.A.S.의 어떤 하위척도에서도 실험과 통제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함으로써 P.E.T.프로그램이 부모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P.A.S. 이외에도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양육태도의 변화를 알아 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Mitchell & McManis(1977)는 적어도 대학2년의 학력을 가진 중류층의 백인여성 78명을 대상으로 26명의 P.E.T.정규집단, P.E.T.교재읽기집단, 그리고 무처치의 통제집단으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통제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두 실험집단에서는 권위주의의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P.A.R.I.를 측정도구로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 본 연구들은 Pelkey(1976)의 경우 66명의 국민학생 부모를 실험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 실시후 결과를 분석하여 실험집단에 속한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 Noble(1976)은 실험집단의 부모들이 통제기술(Controlling Technique)의 사용에 있어서만 유의한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Schultz, Nysruil, 그리고 Law(1980)의 연구에서도 P.E.T.프로그램이 부모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다 민주적인 태도로 변화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에 다른 연구들(Noller & Taylor, 1989; Miles, 1974)도 P.E.T.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Witty(1978)의 경우 P.E.T.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양육가치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며, Anchor & Thomason(1977)도 프로그램을 받기 이전과 받은 이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아마도 피험자의 대부분이 높은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Cedar(1990)의 최근 연구에서는 지난 15년간의 P.E.T.프로그램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연구설계와 피험자 수 등을 고려하여 60개 연구들 중 26개만을 선택하여 상위분석적 연구(meta-analytic study)를 한 것을 보면 종합적으로 P.E.T.프로그램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P.E.T.프로그램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연구결과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또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들도 있어서 P.E.T.프로그램이 양육태도에 효과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2) P.E.T.프로그램과 의사소통기술

P.E.T.프로그램이 부모의 의사소통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Dibrell(1979)은 P.E.T.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와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의 공감(empathy)기술의 사용여부를 자녀들을 통해 관찰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공감기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Moritz(1976)는 대학생을 피험자로 하여 90분의 프로그램 실시후 T.A.E.S.(Truax Accurate Empathy Scale)에 의해 효과를 알아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공감기술의 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고하였다. Therrien(1979)도 30명의 실험집단부모들과 17명의 통제집단부모를 대상으로 T.A.E.S.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사후측정에서 실험집단은 평균 5.36으로 통제집단의 2.9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4달후에도 실험집단부모들의 공감기술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ob & Norfor(1980)는 P.E.T.프로그램을 받은 부

모들은 자녀들을 신체적인 벌보다는 언어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물질적 보상보다는 칭찬, 사랑, 그리고 포용으로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빈번하게 언급한 잇점으로 자녀나 타인과의 향상된 의사소통(29%), 자신 및 타인의 감정수용(19%), 타인의 입장이해(14%), 그리고 향상된 문제해결능력(10%)을 들었다.

Umstot(1979)는 가정된 문제상황을 설정하여 부모의 반응을 말로써 나타내도록 하는 Stollak 등이 만든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실험집단에 속한 부모들의 경우 의사소통결립들의 사용이 감소하고, 피이드백의 사용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Hughson(1980)은 오스트렐리아의 부모들이 의사소통기술에 관한 지식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Hetrick(1979)의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을 받은 아동의 부모 56명을 대상으로 P.E.T.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Carkhuff's Communication Index를 사용하여 검사하였는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영분(1983)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의 의사소통형태가 실험준거형에서 벗어나 자녀의 내재된 심리와 감정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학생들 대상으로 4주간의 P.E.T. 프로그램을 실시한 최근의 연구(김진숙, 연비희, 1991)에서도 대학생들의 대화형태가 권위주의적인 명령, 지위 지향형에서 민주적인 인간관계 지향형으로 변화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P.E.T. 프로그램은 대체로 의사소통기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실험방법 및 절차

1. 실험대상

실험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S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들로서 "P.E.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실험집단에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들중 일부를 통제집단에 각각 30명씩 할당하였다. 그중 중도에 질병, 이사 등의 개

인적인 사정과 2회이상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은 피험자를 제외하여 최종적인 분석에는 총 56명이 사용되었다. 실험대상의 일반적 성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실험대상의 일반적 성격

(N=56)

		통제집단	실험집단	전체빈도
연령	30-35세	18(60.0%)	15(57.7%)	33(58.9%)
	36-40세	10(33.3%)	9(34.6%)	19(33.9%)
	41-45세	2(6.7%)	2(7.7%)	4(7.1%)
교육수준	고졸	7(23.3%)	6(23.1%)	13(23.2%)
	대졸	21(70.0%)	19(73.1%)	40(71.4%)
	대학원졸	2(6.7%)	1(3.8%)	3(5.4%)
자녀수	1명	3(10.0%)	2(7.7%)	5(8.9%)
	2명	25(83.3%)	23(88.5%)	48(85.7%)
	3명	2(6.7%)	1(3.8%)	3(5.4%)
	계	30(53.6%)	26(46.4%)	56(100.0%)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ereford(1963)의 P.A.S.(Parent Attitude Survey)를 연구자가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P.A.S.는 부모-자녀 관계의 5가지 영역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5가지 하위영역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Confidence),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인과성(Causation), 자녀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부모의 수용(Acceptance), 부모와 자녀 상호간의 이해(Understanding), 그리고 신뢰(Trust)이다.

각분항은 대체로 부정적인 진술문으로서 총문항은 77문항이나 맨앞의 2문항은 채점되지 않고 각 영역별로 15문항씩 포함된다. 점수는 원래 -2점부터 +2점까지의 5점척도로 구성된 것을 1점부터 5점까지로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채점하였다.

매우 찬성한다	:1
찬성한다	:2
모르겠다	:3
반대한다	:4
매우 반대한다	:5

점수는 항목별로 15점에서 75점까지의 범위에 걸쳐 있으며, 높은 점수가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어머니의 의사소통기술

어머니의 의사소통기술은 Stollak 등(1973)에 의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S.T.C.Q.(Sensitivity To Children Questionnaire)를 수정하여 사용한 Umstor(1979)의 질문지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사전검사를 위한 것과 사후검사를 위한 것이 각각 6문항씩 있다. 문제 상황은 자녀의 문제상황, 부모의 문제상황, 그리고 부모-자녀 공동의 문제상황이 각각 2문항씩 있다. 어머니의 응답은 Thomas Gordon의 의사소통걸림돌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본다. 의사소통걸림돌을 사용한 경우에는 1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점으로 채점된다. 따라서 점수는 6점에서 12점까지의 범위에 걸쳐 있으며, 높은 점수가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향상된 의사소통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의사소통걸림돌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의사소통걸림돌: Thomas Gordon이 제시한 12가지로 명령이나 강요, 경고나 위협, 혼거나 설교, 충고나 해결방법제시, 논리적 설득이나 논쟁, 비판·비평·비난, 칭찬이나 찬성, 욕설·헐뜯기·조롱, 분석이나 진단, 동정이나 위로, 캐묻기·심문, 돌려서 묻기·변정기림·후퇴이다.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1) 어머니의 양육태도

P.A.S.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아동학 전공의 전문가 2인에게 검토를 받아서 실험대상이 아닌 다른 어머니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에 있어서 Cronbach의 Alpha는 .76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의사소통기술

S.T.C.Q.의 수정형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아동학 전공의 전문가 2인에게 검토를 받아 실험대상이 아닌 다른 어머니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항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평가자간의 일치도는 2인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모든 문항을 평가한 것을 분석한 결과 97%의 일치도를 보였다.

3. 실험내용 및 절차

실험은 1991년 9월 3째주부터 11월 2째주까지 매주 3시간씩 8주간 시행되었다. 실험은 본 연구자가 아닌 P.E.T.강사자격을 취득한 후 여러 차례 부모집단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강사가 실시하였다. P.E.T.강사 지침서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프로그램은 강의, 시범, 토의, 역할놀이, 체험나누기, 실습 등으로 진행되었다.

8주간의 프로그램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P.E.T.프로그램의 내용

회 기	주 제
1회(첫째주)	효과적인 부모역할 이해하기
2회(둘째주)	원조기술 익히기
3회(세째주)	적극적 경청해보기
4회(네째주)	비수용적 행동 직면하기
5회(다섯째주)	갈등이해하기
6회(여섯째주)	제3의 방법 적용
7회(일곱째주)	갈등 줄여나가기
8회(여덟째주)	가치대립 해결하기

Ⅳ.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자료수집은 실험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직후에 시행하였다.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자녀수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기술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변화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그리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과의 차이는 t-test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결과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양육태도

프로그램 실시 전의 실험, 통제 두 집단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는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없는 동질수준이 있음이 밝혀졌다.

1) 양육태도의 사전-사후 평균점수의 비교

P.E.T. 프로그램의 실시 전과 후, 양육태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간에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간에 5개 하위척도 모두에서 유의한 차가 없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P.E.T.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단기간의 교육으로 변화될 수 없음을 밝힌 대부분의 연구들(Anchor & Thomason, 1977; Lewis, 1978; Witty, 1978)과 일치하고 있다.

2) 사후 양육태도 결과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검사에서 실험, 통제집단간에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양육태도의 사후점수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의사소통기술

프로그램 실시 전의 실험, 통제 두 집단간의 의사소통기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어머니의 의사소통기술 사전-사후 평균의 비교
P.E.T. 프로그램의 실시 전과 후 어머니의 의사소통기술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어머니의 의사소통기술 사전-사후 평균의 비교

집단	빈도	사전검사 평균	사후검사 평균	평균의 차	t
통제	30	6.57 (.50)	6.37 (.49)	.20	1.80
실험	26	6.62 (.57)	10.04 (1.25)	3.42	-11.43***

*** P < .001

<표 3>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의사소통기술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P.E.T.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P.E.T.프로그램의 목적이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기술과 원리를 습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P.E.T. 프로그램이 의사소통기술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대부분의 연구들(Dibrell, 1979; Hetrick, 1979; Moritz, 1976; Rob & Norfor, 1980; Therrien, 1979; Umstor, 1979)과 일치하는 것이다.

2) 사후 의사소통기술 결과

프로그램 실시후의 두 집단간의 어머니 의사소통기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4>에 의하면 의사소통기술의 사후점수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어머니의 사후 의사소통기술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통제	30	6.37	.49	14.89***
실험	26	10.04	1.25	

*** P < .001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P.E.T.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기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는데 있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였다. 첫째, P.E.T.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화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단기간(8주)의 교육으로는 효과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둘째, P.E.T.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Gordon의 P.E.T.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의사소통기술에 있어서는 의사소통걸림돌을 사용하지 않는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Gordon의 P.E.T.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여 보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소수의 표본을 사용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이며, 측정도구가 미국의 문화권에서 제작된 것이므로 우리 현실에 맞게 재조정,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P.E.T.프로그램의 효과를 다양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과 추후검사(follow-up test)를 통해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구형선(1982), 한국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부모교육·참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김경미(1987),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유아의 행동수정에 관한 연구, 이화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 김미애(1987), 부모참여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4) 김진숙(1988), 발달지체아동을 위한 응용행동분석 프로그램개발과 부모교육을 통한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5) 김진숙·연미희(1991), "P.E.T.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화형태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8호, 271-283.
- 6) 박영실(1981), 유아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7) 박영충(1985), 유아교육기관의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8) 박찬수(1985), 부모교육 및 참여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9) 송주란(1982), 유아교육을 위한 체계적 부모훈련 모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0) 양영희(1987), STEP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1) 이숙희(1985), 우리나라 TV부모교육프로그램에 관한 현황 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2) 이연승(1984),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3) 이영분(1983), 어머니교육을 통한 부모 자녀간의 갈등개선에 관한 실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4) -----(1990), 부모역할훈련을 위한 한국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5) 이재연·김경희(1989), 부모교육, 서울:양서원.
- 16) 한기은(1985),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7) 한성심(1983), 부모훈련 프로그램 모델에 관한 실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8) 황옥자(1987), STEP프로그램의 한국 적용 가능성 탐색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9) 홍기형외 3인(1985), 부모교육프로그램 모형개

- 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20) Anchor, K.N. & Thomason, T.C.(1977), A comparison of two parent training models with educated paren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2), 134-141.
 - 21) Cedar, B. & Levant, R.F.(1990),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8(4), 373-384.
 - 22) Croake, J.W. & Glover, K.(1977), A history and evaluation of parent edu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151-158.
 - 23) Dibrell, L.L.(1979),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creativity and maternal empathy, respect, and genuinenes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0 (3-A), 1355.
 - 24) Geffen, M.(1977), The value of a course in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for single parents.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25) Gianotti, T.J.(1978), Changes in self-concept and perception of parental behavior among learning disabled elementary school children as a result of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9 (7-A), 4137-4138.
 - 26) Gordon, T.(1975),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Y: Peter H.Wyden, Inc.
 - 27) Hanley, D.F.(1974), Changes in parent attitudes related to a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and a family enrichment program.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4(11-A), 7044.
 - 28) Heath, P.A.(1987), Developing parent education courses: a review of resources. *Family Relations* 36, 209-214.
 - 29) Hereford, C.F.(1963), *Changing parental attitudes through group discussio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30) Hetrick, E.W.(1979), Training parents of learning disabled children in facilitative communication skill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12(4), 70-72.
 - 31) Hughson, B.(1980), An evaluation study of the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program. Master's thesis. Swinburne Institute of Technology.
 - 32) Lewis, A.G.(1978), The impact of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on parent attitudes and children's behavio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9(12-A), 7245-7246.
 - 33) Linda, A.(1987), *Effectiveness training*. Solana Beach: Effectiveness Training Inc.
 - 34) ——— (1989),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instructor's guide*. Solana Beach: Effectiveness Training Inc.
 - 35) Mace, D.R.(1983), *Prevention in family services*. Beverly Hills: Sage Pub.
 - 36) Miles, J.M.(1974),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verbal reinforcement group counseling and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on certain behavioral aspects of potential dropou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5(12-A), 7655.
 - 37) Mitchell, J. & McManis, D.(1977), Effects of P. E.T. on authoritarian attitude toward child-rearing in parents and non-parents. *Psychological Reports* 41, 215-218.
 - 38) Moritz, E.D.(1976), The acquisition of empathic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the active listening training in Thomas Gordon's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3-B), 1443.
 - 39) Noble, R.D.(1976), An evaluation of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and adlerian parent groups: changing child-rearing attitude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8-A), 4869.
 - 40) Noller, P. & Taylor, R.(1989), Parent education and family relations. *Family Relations* 38, 196-200.
 - 41) Pelky, G.F.(1976), The effects of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and teacher effectiveness training on student self-imag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9-A), 5590.
 - 42) Pieper, A.G.(1977), P.E.T. and parent attitudes about child-rearing, Master's thesi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43) Pinsker, M.A.(1977), A comparison of parent effectiveness

- training and behavior modification parent training groups on behavior change in target children : self-concept, family interaction and patterns of behavior chang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8(8-A), 4694-4695.
- 44) Rob, M. & Norfor, J.(1980), Parenting : can skills be learned?. *Aust. Journal of Social Issues* 15(3), 189-193.
- 45) Schmitz, K.P.(1975), A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to changes in parents' self-assessed attitudes and behavior in a rural population. *Dissertation International Abstracts* 36(6-A), 3526.
- 46) Schofield, R.G.(1976), A comparison of two parent education programs :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and behavior modification and their effects on the child's self-esteem.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4-A), 2087.
- 47) Schultz, C.L., Nystul, M.S. and Law, H.T.(1980), Attitudinal outcomes of theoretical models of parent group education.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36, 16-28.
- 48) Tavormina, J. B.(1974), Basic models of parent counseling : a critical review. *Psychological Reports* 81, 827-835.
- 49) Therrien, M.E.(1979), Evaluating empathy skill training for parents. *Social Work* 24(5), 417-419.
- 50) Umstot, M.E.(1979), A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P.E.T.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Dayton.
- 51) Witty, J.L.(1978), The effects of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on parents' personal and child rearing value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0(3-B), 1435.